

공명선거 운동

안상진 (충북대학교 공대 토목공학과 교수)

12월 18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에서는 각기 다른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대선 주자를 앞세우고 각당이 과잉선전에 돌입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후보를 경선하여 뽑았다. 그러나 경선의 후유증이 분당의 위기에 처해있어 자칫하면 와해될 위기에 놓여있다.

야당은 제2, 제3당이 새로운 내각제를 정점으로 결합하였다. 이를 두고 일부 여당에서는 밀실야합이라 부르짖으며 한두 사람이 결합하여 단일 야당으로 통합하는 처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간주하고 있다.

어쨌든 분명히 50여일 대선을 앞두고 혼탁된 선거 운동이 시작될 징조가 있어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 층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선거를 치르는 행정부의 사령탑인 청와대에서 공명선거를 치르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특정 후보인을 절대로 돕지 않겠다고 말한바 있어 다소의 안도감은 든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라 후보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든 유권자를 꼬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 주권자가 모처럼 대접받을 때다.

흔히들 이야기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한다. 선거 역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거를 치러야 비로소 제대로의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고 선거 철만 되면 공명선거 운동이 넘치고 있다. 선거관리 당국의 결연한 의지 표명과 입후보자들의 속이야 어떻든지 겉으로는 저마다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언론 매체들도 저마다 요란할 정도로 공명선거를 제도하게 되고, 공명

선거를 감시하겠다는 민간단체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일상적인 행정 지시나 담화에도 빠짐 없이 공명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도 이번만은 공명선거를 해야겠다는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공명선거가 누구를 위한 운동이며 누구를 못 믿어서 공명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어느 한 사회구석을 돌아봐도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또한 부정선거를 두고 볼 선거관리 당국도, 유권자도 없는데 모두가 전에 없던 공명선거 운동을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가 공명선거를 할 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입으로나마 떠드는 지도 모른다.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도 했다. 요란스레 공명선거는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지도 모른다. 공명선거를 결코 보장 받을 수 없는 사회이기에 그만큼 공명선거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로서 서글픈 뿐이다. 서로가 믿지 못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여러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정치는 50여년전 8.15 정부수립직전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선거형태는 선거행정이나 관권개입이 그렇고, 후보자들이 얼마 쓰면 당선되고 얼마 안쓰면 낙선됐고 한 것을 철칙처럼 믿고 있는 것도 그렇다. 유권자들도 아직까지 이왕이면 주는 사람 찍어 주자는 양심아닌 양심의 굴레에서 못 벗어 나고 있다.

명색이 정당정치를 한다면서 헛공약이나 난발하고 각 개인마다 제각기 공약을 내뿜는 꼴이나 국가에서 세금내어 만든 길을 국회의원 개인이 만든 것처럼 생색내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한심스럽다.

민주주의 훈련도 50여년이나 했고 국회의원 선거도 15번째나 연습했으니 웬만큼 알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돈 봉투가 왔다갔다하여 표를 사고 식당에서 음식대접 하면서 표를 모으는 작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런 형편에서 공명선거 운동을

아무리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캠페인으로 계도하기 전에 대통령을 포함한 전 공무원이나, 입후보자 각자가 자기부터 스스로 다짐하고 반성해야 한다.

적어도 나는 반드시 공명선거를 하겠노라고…… 분명한 각오로 유권자는 받지 말고 후보자는 주지 말고 라는 캠페인으로, 주는 것은 되돌려 주되 표는 제대로 찍는다는 태도로 자기 혁신 캠페인을 벌려야 할 시기를 강조하고 싶다. ●



쉬임없이 올려 나는 물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차라리 아무 소리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것보다 같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물은 어진 것입니다.

- 유치환/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